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9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마이스산업과	담 당 자	• 마이스유치팀장 • 담당자	구미정 ☎440-1511 최요한 ☎440-151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환경기술의 성장방향을 제시할,
『2022 환경산업&탄소중립 콘펙스』 인천 최초 개최
-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외 투자상담회, 채용상담회 등 동시개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와 환경보전협회(회장 권한대행 김혜애), 인천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단(단장 인천대학교 교수 이희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2 환경산업&탄소중립 컨퍼런스 및 전시회(ECIEX)』가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인천서구 일대가 환경분야 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인천시가 환경산업의 성장을 이끌 컨퍼런스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천 서구 일대를 환경분야 특화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지정·고시했다. 강소특구는 혁신 역량을 갖춘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시는 환경분야 강소

특구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약 3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4천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인천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환경 관련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분야 컨퍼런스, 전시회, 비즈매칭 프로그램, 환경산업시찰 등으로 구성해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미래 환경기술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개최될 컨퍼런스는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의 역할 ▲환경산업 국내·외 정책 동향에 대한 기조연설과 발전 방향에 대한 소주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고, ▲환경산업 및 탄소중립 유망기술, ▲해외 환경산업 진출 전략 등 환경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시 개최되는 전시회에서는 ▲수처리 및 대기오염방지, ▲측정기기, ▲수소 산업 등 미래에너지,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전시돼 환경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 구매상담회, ▲환경 우수기술 사업화 투자상담회, ▲지역 환경시설 산업시찰 지원 등 환경 분야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의 국내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질적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환경 분야의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의 채용상담회도 개최해 유망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김경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인천의 미래 환경산업 육성 의지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ECIEX 2022의 참관 신청은 행사 홈페이지(www.eciex.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등록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붙임> 행사 포스터 1부.

